

시멘트·콘크리트 관련 주요 뉴스 및 단신



3분기 시멘트 생산·출하 전년동기대비 감소

2012년 상반기 증가세를 보였던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이 3분기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시멘트 업계의 실적 개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10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 감소했다. 출하량도 994만톤으로 5.8%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2012년 3분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시멘트 생산과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시멘트 수급 호조로 실적 개선세를 이뤘던 주요 시멘트사들의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분기부터 시멘트 가격이 톤당 6만7,500원에서 7만3,600원으로 9% 인상돼 적용되고, 상반기에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이 전년대비 3%와 6% 각각 늘어나면서 주요 시멘트사들은 적자 폭을 줄이며 흑자 전환을 기대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하반기 시멘트 수요가 상반기보다 많아 주요 시멘트사들이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여전한 건설경기 침체에 기상악화까지 겹치면서 3분기 시멘트 출하량은 불황기였던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9월까지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 누계도 각각 3,499만톤 3,251만톤을 기록 지난해 대비 1%와 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07년 5,081만톤에서 지난해 4,465만톤까지 줄었던 시멘트 생산량이 올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시멘트 제조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톤당 80달러선으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실적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13일)

10월 전국 항만 시멘트 물동량 전년동월대비 9.6% 감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1억1,192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한 가운데 시멘트 물동량도 전년동월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항만 물동량은 9월에는 전년대비 8.9% 증가했었으나, 1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 10월까지 누적 항만물동량은 총 11억861만톤으로 전년동기(10억8,379만 톤)대비 2.3% 증가하였다.

2012년 10월 주요 품목별 물동량 (단위 : 천톤, %)

품목별	유류	광석	유연탄	철재	기계류	자동차	화공품	모래	시멘트	기타
총물동량	32,395	11,198	9,370	8,169	7,414	7,414	4,910	3,827	3,469	26,396
전년동기 대비	-4.1	2.2	-9.1	-1.3	13.0	13.0	-2.1	-19.9	-9.6	-1.1

자료 : 국토해양부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항과 광양항은 기계류 및 유류 등 수출입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5%, 10.4%, 증가했으나, 울산항과 평택·당진항은 유류 및 화공품 등 수출입 물량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9%, 3.6%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광석 및 기계류가 수출입 물량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2%, 13.0% 증가한 반면, 시멘트(-9.6%), 유연탄(-9.1%) 등 다른 품목들은 대부분 감소하였다.

한편, 전국 항만의 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189만8,000TEU)에 비해 0.2%(10월까지 누계 4.4% 증가) 증가한 190만2,000TEU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경기 위축, 내부수진 등의 국내의 경제 여건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도 동기 수준의 물동량을 처리한 것이다. (11월 28일)

하수슬러지 시멘트공장 연료로 재활용

원주시가 바다에 버려오던 하수슬러지를 건조시켜 시멘트 생산공장의 연료로 공급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강원도민일보가 보도했다.

원주시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친환경적으로 건조시켜 시멘트 생산공장에 연료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원주시는 그동안 지역의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톤당 9,500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바다에 버려왔다. 연간 처리비용만 17억~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원주시는 원주공공하수처리장에 14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시험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원주시는 시험운영을 마친 뒤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주시가 설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루 1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원주공공하수처리장과 문막·흥업 하수처리장, 원주분뇨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원주시는 최종 건조처리된 하수슬러지를 톤당 1만2,000원에 시멘트 생산공장의 연료로 판매할 계획이다. (11월 19일)

발열 촉진양생 기술, 콘크리트학회 기술상 수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11월 8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2012년도 콘크리트 학술대회'에서 '콘크리트 발열 촉진양생 기술'로 제21회 학회상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건설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콘크리트 발열 촉진양생 기술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양생을 빠르게 하는 신기술로, 평균 3~5일 소요됐던 콘크리트 구조물의 양생시간을 계절과 상관없이 1일 이내로 단축시킨 것이 핵심이다. 특수 제작된 거푸집을 활용해 콘크리트 양생의 최적 온도인 35~55℃를 지속시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확보와 급속시공을 가능하게 했다.

철도·도로 교량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론 아파트 등의 건축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콘크리트 공사의 소요 공기를 20~40% 정도 단축할 수 있고, 연 2~3조원대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만 철도연 원장은 "현재 북유럽, 러시아, 북미, 중앙아시아 등 혹한지 해외건설 시장에서 콘크리트 촉진양생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이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열거푸집 최적화와 촉진양생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 등 신기술 적용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월 7일)

유진기업, 시멘트 사업정리 레미콘에 역량 집중

유진기업이 시멘트 사업을 정리하고 레미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회사는 전라남도 광양 시멘트 공장을 855억원에 디에이치시멘트네트웍스에 매각한다고 11월 5일 발표했다. 광양 공장의 영업권,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조건이다. 유진기업은 앞서 2001년 시멘트 사업을 시작했다. 2004년에는 고려시멘트를 인수하며 사세를 확대했다. 주력 사업인 레미콘 사업의 원가를 줄이기 위한 포석에서다. 그러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유진기업 레미콘 공장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기대만큼 시너지가 나지 않아 매각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로써 유진기업은 2004년 고려시멘트 인수로 확보한 시멘트 공장 두 곳을 모두 정리했다. 전라남도 장성 공장은 지난 7월 160억원에 강동에 넘겼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수도권 레미콘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비핵심 자산을 선제적으로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1월 5일)

미산인터내셔널, 미얀마에 합작 시멘트공장 설립

미산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 합작 시멘트 공장을 건립한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미산인터내셔널은 지난 10월 21일 미얀마 양곤에서 제이카바인더스트리(이하 제이카바), 미얀마 마이트인더스트리얼(이하 MMIC)과 연산 150만톤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건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제이카바와 MMIC는 양곤의 밍글라돈시티 등을 개발한 제이카바그룹 계열사로, 그룹 회장인 켄세 상원의원은 현재 한-미얀마 의원친선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 5월부터 시멘트 사업 공동 추진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7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당 석회석 광산에 대한 투자 여건 조사를 시행키도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얀마는 석회석이 풍부함에도 지난해 기준 시멘트생산이 240만톤에 불과해, 전체 수요(약 600만톤)의 절반 이상을 인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는 대규모 건설 붐 등으로 올해 시멘트 수요가 1,000만톤 이상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23일)

중국 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 배출량 제한 정책에 '울상'

중국 환경보호부가 질소산화물 배출 제한 정책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혀 시멘트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중국 시멘트업계에 순이익이 감소하고 과잉생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 제한정책이 시행될 경우 수익이 줄어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말에는 중국의 시멘트 총 생산량이 31억1,000만톤에 달하는 반면 총 수요량은 18억톤에 그쳐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중국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선진국 기업에 뒤지지 않지만 만약 질소산화물 배출 제한 정책이 실시될 경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신규표준을 발표하면 시멘트에 톤당 20~40위안의 추가 비용이 들어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전세계 질소산화물 배출량 1위 국가로 시멘트는 화력발전, 자동차 배기가스에 이어 3번째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다. (11월 13일)